よくばりな犬

肉をくわえた犬が、はしをわたっていました。

ふと下を見ると、川の中にも肉をくわえた犬がいます。

犬はそれを見て、思いました。

（あいつの肉の方が、大きそうだ）

犬は、くやしくてたまりません。

（そうだ、あいつをおどかして、あの肉を取ってやろう）

そこで犬は、川の中の犬に向かって思いっきりほえました。

「ウゥー、ワン！」

そのとたん、くわえていた肉はポチャンと川の中に落ちてしまいました。

「ああー、あ」

川の中には、がっかりした犬の顔がうつっています。

さっきの川の中の犬は、水にうつった自分の顔だったのです

2年生～4年生 課題文③

 **욕심 많은 개**

고기를 입에 문 개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.

문득 아래를 보니, 물 속에도 고기를 입에 문 개가 있었습니다.

개는 그것을 보고, 생각했습니다.

‘저녀석의 고기가 큰 것 같다’

개는 분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.

‘그렇다, 저녀석을 위협하고, 그 고기 를 빼앗아야지’

거기서 개는, 물 속의 개를 향해 마 음껏 짖었습니다.

“우, 멍!”

그러자마자, 입에 물고 있던 고기는 풍당 떨어져 버렸습니다.

“아---, 아”

물 속에는, 실망한 개의 얼굴이 비쳐 있었습니다.

조금 전의 물 속의 개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.